

영재교육에 있어서의 연계성(連繫性)과 연속성(連續性)

김 재 은 (이화여대 명예교수)

1. 머리에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영재교육강화”에 관하여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비롯한다. 전 세계가 지식기반사회로 옮겨가면서 선진 국가를 비롯해서 중진국까지도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국가정책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후원과 제도적 보장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에 발맞추어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부조직도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켰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안고 있는 최대 맹점은, 지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영재교육에 관한 정책은 아직은 일천해서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교육정책이 예측가능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결여는 빈번한 장관의 교체와 정부의 확고한 정책수행의지의 결여가 그 원인이라고 보아진다.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의 배치와 정책수행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이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002년 4월 18일 자로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이 법적 제도적 기초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영재교육의 공식적 역사는 아주 일천한 상황이다. 이와같이 영재교육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을 것이다. 제도적 행정적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우려될 문제로서 고개를 들게 될 연계성의 문제와 연속성의 문제를 논의 해 보려고 한다.

연계성(articulation)이란, 학교사다리를 올라 갈 때마다, 아랫 계단과 윗 계단 사이의 연결 관계를 말한다. 거기에는 학생들의 순조로운 이동과 이동 전후의 교육프로그램의 시퀀스(sequence)를 적절화 시키는 일과 관련된다. 연속성(continuity)이란 지속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유아 단계에서부터 태학(혹은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같은 영재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적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과제가 잘 해결되어야만, 영재가 영재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고, 유위한 인재로 육성될 수가 있을 것이다.

2. 문제의 배경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이 공적으로 출범한 것은 1979년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박찬현이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부르짖게 되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영재교육실시를 위한 연구를 위촉하였고, 12월에 “영재교육의 동향 및 실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영재교육의 발전에 불을 당겼다고 할 수가 있다. 1995년부터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월반제도를 인정하고, 음악이나 무용과 같은 예술분야에서는 실기지도를 위해서 교내과외를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월반제도도 제한적이어서 학교장의 재량을 크게 제약하는 제도여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학년을 건너뛰게 만든 월반제도는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꿀치 아픈 아니 빨리 졸업시키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 최초의 영재학교는 경북의 구미시에 있는 구미고등학교이며, 1980년 3월 6일 개교하였다.

영재교육이 그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효과적이고 충분한 교육투자가 요청된다. 그 까닭은, 영재교육이 특수교육의 한 영역이기 때문이며, 특별법의 제정(영재교육진흥법-1997)을 비롯해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특수교사 양성과 재교육, 특별한 시설확충, 행·재정적 지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설치운영,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특별활동 내지는 과외활동프로그램의 준비, 영재아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도입, 등등에는 모두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뒷받침에는 반드시 법적 제도적 구속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 입법부, 행정부, 여론의 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재교육과 같은 특수교육의 제도적 확립에는, 비록 법적 기초

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또한 필수적이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이 된 만큼 한국의 미래의 인재확보라는 관점에서든 법적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의 현황

한 때 우리나라 교육의 맹점을 비꼬는 말로, “학교 다닐 때의 천재는 학교를 졸업하면 바보가 된다.”라는 것이 있었다. 좀더 각색을 해서 말한다면, “유치원 때 신동(神童)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천재가 되고, 초등학교 때의 천재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수재가 되고, 중고등학교 때의 수재가 대학에 들어가면 우수 장학생이 되고, 대학 때의 우수 장학생이 사회에 나가면, 평재(平才)나 범재(凡才)가 된다.”고 하는 말로 바꾸어 놓아도 대체로 맞다. 얼마나 학교교육을 불신 한 말인가? 이 문제는 모두 연계성·연속성과 관련이 된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교사다리를 올라갈수록 교육이 부실해 진다. 유아교육보다 대학교육이 훨씬 부실하다. 구자경 LG명예회장이 1995년 1학기 건국대학교 전체교우회의에서 초빙강사로 강연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구회장은 한국의 대학교육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대졸가의 기초교육부실, 10년 이상 공부하고도 영어구사능력 열등한 것, 전문지식·기술의 열악한 효용가치, 졸업생재교육 부재(부실한 학생 배출해 놓고도 리콜도 안한다)등을 꼬집었다. 이들을 재교육하는 데만도 몇 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와같이 일반교육이 부실한 상황에서 영재교육의 정착이란 어려운 것이다. 그 좋은 예로 영국을 들 수 있다. 일반 교육의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이 그리 발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재의 배출에서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우월하다. 그 중 한가지 예가 “세계 발명가 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역사상의 대 발명가들 중 영국인이 가장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각급학교가 각각의 독자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내 학교는 학교사다리의 모든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에 한시라도 빨리 올라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요즘 일부학부모들이 초등학교 5학년 자녀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앞당겨 가르친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조급함 때문에 온갖 교육적 병

리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사 지바고”를 쓴 소련 작가 파스테르나크가 한 말이 있는데, 그가 하는 말 “인생은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준비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말을 되새기기를 바란다.

정범모(1996)는 지금의 한국학교는 철저하게 영재출현조건들의 정반대만을 펼쳐 놓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지금의 한국학교교육의 반영재교육적 분위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영재는 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의 한국 가정도 마찬가지로 영재를 기를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염려하였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지식위주교육, 가정위주교육, 기억위주교육,

미국은 1988년에 공포되고, 1994년에 개정된 영재교육법에 기초해서 32개주에서 영재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10개주에서는 특수교육의 일부로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계열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다. (박성익, 미국의 영재교육, pp. 11-14).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영재학교, 영재학급, Magnet School, 영재교육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교내 교외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고등학생을 위한 AP(Advanced Placement) 제도, 이중등록제도, 조기학점이수 등을 활용하고 있다.(앞의 책 pp. 17-21). 조기 진급 조기 졸업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 두고 있으며, 연계성과 연속성이 아주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 퍼듀대학의 영재센터

1993년 보고에 의하면, 미국 38개주에서 약 200만 명 이상의 초, 중등학생이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대체로 심화학습, 속진학습, 능력별 반편성등의 프로그램이 주된 교육방법이고, 속진제도에 있어서는 월반, 과목면제, 트랙킹(tracking- 영역별로 진로를 설정해서 지도하는 것)등을 채택하고 있다. 퍼듀에서는, 300~400명의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선택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학점은 대학에서 인정해주고, 대학에서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나 주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영재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성과 연계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

3) 영국의 경우

영국은 일반교육의 수월성향상에 더 치중하면서, 근년에 이르기까지 영재교육에는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사립의 명문 중, 고등학교 학생이 실제로는 지적 능력에 있어서 영국 전체의 상위 2%에 속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적 차원의 법적 제도적 체제내에서의 영재교육은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 그러다가 1999년-2000년도 “수월성 정책”에서 학교의 영재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5-6학년 영재군고 3-8개 중고등학교를 하나의 영재학교군으로 만들어 공동연구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2006년까지 중등학교의 2분의 1을 특성화 프로그램 학교로 전환시키겠다고 한다. 그리고 1000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의 영재교육은 전통적으로 일반학교체제에서 다수의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성존중교육을 그 특징으로 삼아왔다. 따라서 포괄적 교수-학습전략으로 영재교육을 대신해 왔다고 할 수 있다.

4)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이유로 영재교육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영재교육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과 영재교육기관이 아주 다양하다. 2000년후 방과후 심화 학습영재교육 센터, 주중 1일 영재교육 센터, 일반학교내의 영재학급, 영재학교등의 네 가지 유형이 주된 시스템이다. 방과후 심화학습 영재교육 센터등록생수가 51%로 가장 많다. 영재학급은 15%, 영재학교는 0.02%정도의 참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조석희, 이스라엘의 영재교육, 앞책, pp. 133-137)

이스라엘은 영재 조기 발견과 조기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영재아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각 영역별로 분화된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국가가 이것을 지원한다. 영재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추진, 국가수준의 지원의 확보 등이 중요한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5) 중국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영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영재아들의 진로가 비교적 보장되어 있다. 영재연구 기관과 영재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 학교에 “실험반”이라는 이름으로 영재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교육과 영재교육을 공존시키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비교적 성공적인 영재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재들이 입학시험에서 자유롭다는 점, 실험반에서 대학으로의 진학에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대학 내에서도 연소영재를 위한 소년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구자역, 중국의 영재교육, 앞책, pp. 230-233)

이들 나라의 영재교육의 시스템이나 내용이 모두 조금씩 혹은 많이 다르지만, 목표는 한결같이 동일하며, 법적 제도적인 기초를 다지고,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나라의 영재교육이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재학시 영재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실제로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재교육에서의 연계성과 연속성은 영재교육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성공여부와 기준은, 영재로 선발되어 교육받은 아동, 학생이 학교를 나온 후 다른 일반 학생에 비해서 창의적인 업적을 더 많이 남겼느냐 아니면, 그런 과업을 더 잘 효과적으로 수행했느냐 아니냐로 객관적인 증거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영재교육 시스템이 일반교육의 수월성 향상에도 이바지 했느냐 하는 것도 영재교육 시스템 평가에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교육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다. 물론 여기에 한가지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점은, 영재선발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학쪽 인재양성에 치중하고 있고, 지적 능력 개발에 치중하고 있고, 지적 능력 개발에 치중하고 있어서 다소 편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영재를 교육하는 교사의 질의 문제가 있다. 초등단계와 중등단계 사이에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학교간의 교육의 질적 차이 문제도 남는다. 이 점은 중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국의 영재교육은 과학하는 능력의 함양뿐 아니라 사회지도자로서의 가치체계와 철학을 지니도록 강조하는 점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다르다. 미국은 다양성과 실험성으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아주 넓고, 학생이 요구하는 필수조건으로서의 연계성과 연속을 잘 보장해주고 있다.

5. 연계성과 연속성의 이론적 실제적 의미

영재 혹은 영재성은 조기(유아기)에 발견,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키울 때, 잠재적 역량이 최대한으로 개발 될 수 있다. 말하자면, 학습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는 것이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가 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 있다.

우선, 교육적으로는, 잠재능력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혹은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동기유발과 자기 신뢰감을 키워주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는, 장기간에 걸쳐 기초교육, 준비성교육, 탐색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잠재적 역량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셋째는, 개인적 특성, 성격, 개성, 흥미, 태도, 가치관 등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에 참고가 될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넷째로 조기 발견, 발굴을 통한 교육은 교육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충분히 확보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교육을 개시한다면, 교육적 효과가 아주 좋다는 이론을 빌려서 가설적 모델을 만들어 보았다.

<그림 1>과 <그림 2>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 그림은 발달적 학습심리에 기초한다.

1) 나이가 어릴수록 잠재적 가능성(potentiality)은 더 많이 열려있고,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개발 가능성은 닫히게 된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일수록 가능성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능성이 이미 검증된 바가 많이 때문이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J.B. Watson의 유명한 유아기 환경과 교육의 정대적 역할에 대한 주장은 참고가 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누적되는 학습효과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학습효과를 좌우하게 된다. 말하자면, 기왕학습의 선행억지(forward inhibition)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개인에 있어서는 개인적 흥미, 적성, 관심사등은 점점 좁은 영역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Bloom, B.S.(1966)도 인간의 지력이란 17세에 거의 완성되며, 17세를 기준점으로 보아서, 나이가 어릴수록 환경이나 교육이 지력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가 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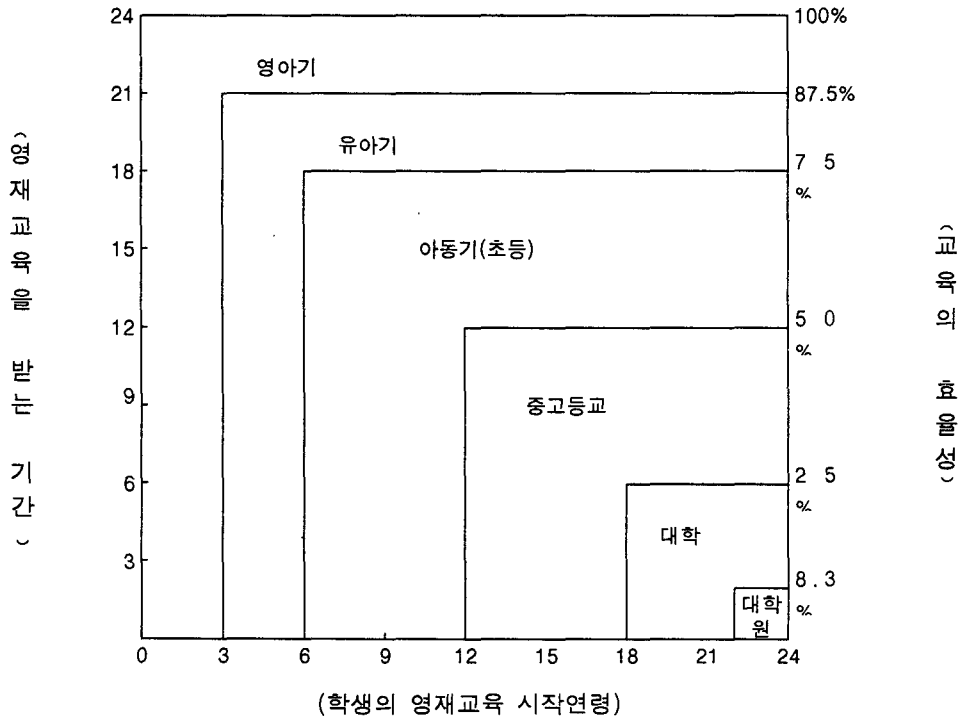
2) 준비성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특정 학습활동이나 기능수행에는, 거기에 기

초가 될 수 있는 심리-생리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준비성이다. 각 학습영역에 따라서 준비성의 연령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준비성 자체도 교육과 훈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론도 있다. 그러나 예능분야에서는 특정 예능분야에 특별히 요구되는 신체적 조건이 중요하다. 악기연주의 경우에는, 근육의 탄력성이 큰 유아-아동기에 학습을 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근육이 이미 탄력을 잃은 성인기에는 학습의 효과가 적다. 따라서 근육-관절(힘줄), 성대 등의 조건이 경직되기 전에 학습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iano, Ballet, Violin, 체조 등이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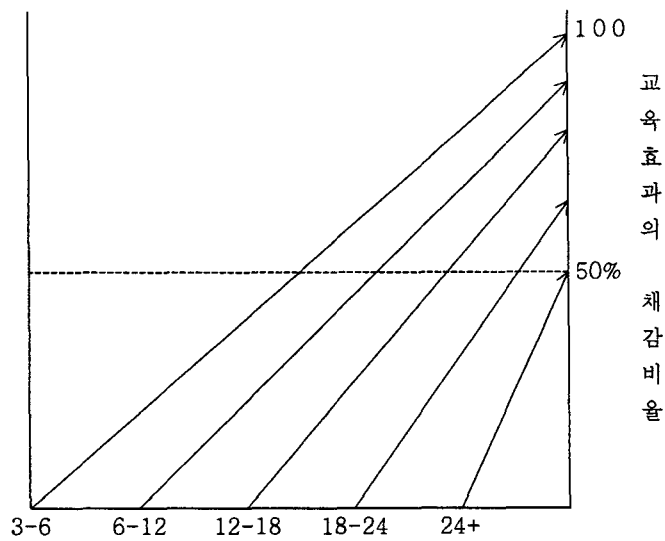
3) 학습의 적기성(timeliness)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준비성과 관련이 있으나, 신체적-정신적 준비성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학습을 개시하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학습의 효과가 크게 저감된다는 점이다. 유아-아동기에는 예체능계통과 언어학습의 개시적기성이 높고, 과학, 언어, 수학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적기성이 높다.

4) 학습의 효과를 만드는 주요 조건 중, 개인의 지능-적성, 동기, 그리고 학습시간이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중에서도 시간은 어떤 연령층에도 가장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 학습을 개시할수록 완전 학습(Mastery Learning)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간다. 반복학습이 가중하고, 충분한 학습량으로 잔존학습효과를 크게 높여줄 가능성이 높다.

5) 학습의 효과란 기초과정에서 충분한 습득 혹은 완전학습을 이룩한 어린이라면 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재생산 되어 증폭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초과정에서 견고한 학습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에서 심화학습도 가능해 지고, 다른 학습으로의 전이(Transfer)도 용이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림 1> 영재교육을 받는 기간과 교육의 효율성 (가설적 모델)



<그림 2> 출발연령과 도달점 사이의 채감형상(attenuation)(가설적 모델)

이러한 이론의 기초로 그림을 설명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물론 이것도 가설적인 설명에 불과한 것이란 점을 전제해 둔다.

<그림1> 은 영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서 그 효과가 차별화된다는 내용이다. 즉 3-6세경에 시작하면, 24세를 기준으로(24세가 대학원 연령에 해당됨), 18-21년간 영재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효율성은 75%-87.5% 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숫자는 기계 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상대적 크기로 해석해 주면 된다. 유치원때 시작(5세경)하면, 교육기간은 19년을, 효율은 약 80%가 되고, 초등학교 1학년(6세) 에 시작하면, 18년간 교육받고, 75%의 효율을 얻는다. 중학교1학년(12세)에 시작하면, 12년간 교육을 받고, 효율은 50%, 고등학교1학년(15세)에 시작하면 9년간 교육받고, 효율은 37.5%로 준다.

대학(18세)에서 시작하면, 6년간 교육기간에 효율은 25%로 하락한다. 대학원부터는 거의 영재교육이란 없다. 효과도 별로 없다는 말이다.

<그림 2> 는 유아기에 영재교육을 시작했을 때를 효율 100으로 가정했을 때, 나이가 들수록,학년이 올라갈수록, 늦게 시작하면 할수록 최종도달점에서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채감원리 (attenuation paradox- 이 개념은 통계학에서 빌려온 것임) 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요점은, 하나는 영재교육의 조기출발을 시사하는 점이고, 둘째는 영재교육의 연속성 문제 이다.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교육효과는 불확실 한 것이 되고 만다.

6. 우리 나라의 영재교육에 있어서의 연계성과 연속성문제

2003년 6월 25일자 동아일보의 “나의 인재감별법”이라는 칼럼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그의 인터뷰기가 실린 일이 있다. “이 시대에 이건희 회장께서 쓰고 싶어하고, 갈망하는 인재는 어떤 유형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바로 천재입니다. 외부에서는 신 경영이 질 위주의 경영이었다면, 제2의 신 경영은 무엇일까 궁금해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나라를 위한 천재(영재를 말함) 키우기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천재를 그토록 갈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에, “몇년전부터 5년, 10년후

될 먹고 살지를 고민해 왔어요. 바로 이거다 하는 사업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환경이나 기술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미래에 보장된 사업을 지금 찾아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과제였어요.” 긴 고민 끝에 이진총회 회장이 찾아 낸 결론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뛰어난 인재를 육성해야겠다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삼성만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인재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결국 천재, 우수한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강변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과거에는 10만명, 20만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살렸지만, 앞으로는 천재 한 사람이 10만명, 20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총칼이 아닌 사람의 머리로 싸우는 두뇌전쟁의 시대에는, 결국 뛰어난 인재,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디자인천재, R & D 천재, 설계천재, 등 분야별 천재급 두뇌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룰 수 있는 천재가 대학수준의 교육에서는 길러질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늦어도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조건을 만들어 줄 때만이 천재교육이 가능하다. 대학생연령이 되면, 잠재적 가능성을 이미 75%정도 소진해 버린후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25%를 어떻게 활용할가를 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영재아의 자기실현을 도와주는 일이고, 둘째는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즉 자기실현과 국가, 사회발전의 목적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수분야나 영역에서 보여주는 탁월한 잠재능력이나 재능을 계발하도록 도와주어서, 영재가 개인적으로는 성취감과 자기충족감(보람)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냄으로써, 더 발전되고 복지화 된 인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하게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진회 회장의 주장은 주로 이 두 번째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인재를 육성(영재교육)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영재교육이 제도화된 것이 겨우 2,3년에 불과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교육현장과 사회의 요청을 충분히 연구해서, 효율성있는 영재교육 시행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학교사다리간의 연계성이 아주 빈약하고 왜곡되어있다. 유아기부터 고등학교졸업까지(k-12학년), 맥락이 서 있는 일괄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유아기에서 초등으로, 초등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올라갈

때 마다 상급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을 받아(연계성), 지속적으로(연속성) 교육해야 한다. 우리는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다. 하급학교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만일 영재성에 문제가 없는 한은, 대학졸업까지 상급학교진학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문제해결에는 걸림돌이 많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골치꺼리이다. “특혜” 논란이 일고, “국민의 정서” 운운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영재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교육에 대한 잘못 된 평등의식 때문에, 특정학생에 대한 특혜(?)를 허락하지 않는 강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영재교육이 정착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연속성은 지속성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적어도 중학교 수준에서 확실히 영재성이 인정되면, 대입준비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영재성이 계속 성장할 수가 있다. 이 문제만큼 우리 교육에서 해결책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것이 없다. 말하자면 영역이기주의 표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영재교육성의 문제만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되는 분야도 없을 것 같다. 특히 예체능분야에서의 영재발굴,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가치있는 증거의 하나로 일본의 스즈키 진이찌선생의 50년간에 걸친(바이올린을 위주로 한 조기 음악 재능교육을 말함)의 결과를 제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음악교육가인 스즈키 진이찌선생은, 그의 여러 저서 속에서 재능교육에 관한 이론을 50여년간에 걸친 교육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재능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고 길러지는 것이며,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만으로도 누구나 재능을 키울 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다섯가지로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1) 보다 이른 시기에 학습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3) 보다 올바른 지도법으로 가르쳐야한다.
- (4) 보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 (5) 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지도 해야한다.

스즈키 선생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악교육가로서 그의 이름을 딴 “스즈키 메쏘드”라는 고유명사로 표시된 교육방법을 사용한다. 스즈키 선생은 자기 연구소

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찾아 온 음치라고 판정된 어린아이에게 바이올린을 스즈끼 메 쏘드로 가르쳐서 20-30년후에 세계적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린 주자로 키운 사람 40명의 명단을 실명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스즈끼는 음악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 조기교육을 중요성을 주장하는 교육자인데,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듯이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는 날부터 음악교육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범모(1996)는 지금의 한국사회풍토가 영재생성과 훈련을 어렵게 한다고 개탄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한국인의 기복사상과 부귀다남 가치관이 장애요소라고 했다. 이런 가치관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선미 따위의 초월적 가치는 경시되고, 공부 잘하고, 입시 잘 치루고, 출세하는 일에만 집착하는 가정풍토, 학교풍토, 사회풍토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기복사상은 수재출현에는 이익이 되지만 영재출현에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했다.

둘째이유로는, 한국인은 인간의 내적 가치(예컨대 보람등)보다 외래적 가치(출세, 영달등)에 치중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원래의 가치보다 교육을 수단으로 삼는 수단주의적 교육풍토가 지배적이라는데 있다고 했다.

셋째이유는, 우리 사회는 출세, 치부와 같은 세속적 가치에만 치중하고, 이런 것 이외의 다원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다가치적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기술자 보다는 정치가가 높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우리 사회는 “새 것”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은” “一樣性”과 폐쇄성이 주류적인 사상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다섯째로는, 의견이 같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과 식견이 부족한 사회라고 했다. 즉 “不同意”의 자유가 부족하거나 제약을 받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영재들이 출현하기에는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타당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한두가지 첨가한다면, 교육적 사회주의적 의식, 치열한(과다한) 경쟁의식, 개인차를 불인정하는 교육적 사회적 풍토도 영재출현과 영재교육의 실현을 가로 막는 장애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내적 요인으로는 장관의 빈번한 경질, 정책의 일관성 결여,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제도, 교육예산의 배정문제, 전문인력의 부족,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의지부족, 등등도 여기에 관련이 된다.

7. 몇가지 제언

1) 정부차원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영재교육부서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도 해야 한다. 그래야 연계성과 연속성이 보장된다.

유아기 교육 단계부터 음악, 무용, 체육 혹은 지적 영역의 영재를 발굴하는 작업을 지도해야 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대학 졸업 후 까지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지속적인 국가적 노력없이 인재를 잘 길러지기 어렵다. 기업이 대졸자를 받아서 훈련시켜보아야 이미 때를 놓쳐서 시간이 늦어져서 효율성이 없다. 아무리 훈련시켜보아야 그중 1%도 건지가 어렵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능력의 체감현상 때문이다.

2) 지방교육당국 차원

영재교육진흥법 정신에 입각해서, 지방단위의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상설로 가동시켜, 각급학교에서의 영재발굴작업, 발굴된 영재를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 배정, 하급학교에서 상급학교에로 이동할 때의 원만한 연계성확보, 이들의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나아가 대학 진학 후 에도 지방종합대학 영재교육센터와 협력체제하에, 지속적으로 훈련 교육시키는 과업을 담당해야한다.

이때, 유치원의 신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천재로 전략하고, 초등학교의 천재가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수재로 전략하지않도록 하려면, 연계성의 원리를 최대한으로 잘 지켜야 한다. 적어도 한 교육구청이나 교육위원회 단계에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방법의 하나로 대학의 신입생 선발시 “영재다들은 특별 전형으로 뽑거나 무시험으로 뽑아야만 교육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들어가야만 된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정운찬총장의 제안대로 지방학생으로 위한 쿼타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문제까지도 형평성이나 기회균등의 원리를 위배한다느니, 특혜니하고 시비를 걸면 계속 우리는 인재육성에서 후진국으로 전략하고 만다. 그런점에서 바람직한 제안이라 생각한다.

3) 학교차원

각 지방(교육구청단위나 시도단위) 교육현장에서는 연합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몇몇 학교를 묶어서 한 프로그램단위로 운영을 하되, A학교에서 수학영재를, B학교에서는 어학영재를, C학교에서는 과학영재를, D학교에서는 음악영재를, E학교에서는 미술을, G학교에서는 체조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된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도 할 수 있다. 또한 예산도 절감 할 수가 있다.

시카고대학의 Bloom, B.S.(1985) 교수가 주도해서 한 음악(피아노)영재연구 결과를 보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22명을 종단적으로 추적연구를 했는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 5,8세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하루에 평균 6시간이상 연습을 18년간 해야하고, 선생님은 평균 4번 교체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4단계의 랫슨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첫째 단계; 마을의 개인 랫슨 교사에게서 배운다.(유아기)

둘째 단계; 그 도시에 유면하고 유능한 피아노교사에게서 지도를 받는다. (아동기)

셋째 단계; 그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유명하고 유능한 피아노에게서 지도를 받는다. (중고교시절)(대학교수나 직업연주자)

넷째 단계; 전국적인 수준에서 유명하고 유능한 피아노교수(대학) 혹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에게 사사 받는다(청년기 혹은 그 이후)

이렇게 지속적인 훈련과 순조로운 연계성확보로 인해서 그들이 세계적인 연주가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대개는 스폰서가 붙고 지도교사간에도 연계가 아주 잘되어 인수인계가 잘 되는 편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송두리째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예술영역에서는 더욱 연계성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없이 한단계라도 차질이 생기면 그는 훌륭한 연주가가 되기 어렵게 된다.

4) 가정과의 협력체제

우리 나라의 경우, 학교의 공교육시스템보다 학부모의 의식이 언제나 한두어 발자국 앞서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학원과의, 개별과의 공부, 고액쪽집개과의, 동질적인 고액 그룹과의, 외국어학연수, 외국인 학교 불법입학, 조기유학들, 언론이 그렇게 질타를 하고, 비판여론이 들끓어도, 꿈쩍않고 밀로 나가는 배짱을 가진 학부모가 많으면, 정책이고 제도고, 법이고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만다. 학교가 영재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이

해구하기, 협력구하기를 사전에 해두어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적 교육 풍토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일이다.

참고문헌

1. 구자역(2002). 중국의 영재교육, 동서양주요국가들의 영재교육. 서울;문음사, p.203-233.
2. 김재은(1996).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교육개발원, 심포지움 자료집, 1-24
3. 박성익(2002). 미국의 영재교육, 동서양주요국가들의 영재교육. 서울; 문음사,pp.11-84.
4. 신세호(1988). 영재교육, 한국교육개발원, pp.227-233
5. 안미숙(2002). 영국의 영재교육, 동서양주요국가들의 영재교육. 서울; 문음사,pp.87-131.
6. 조석희(2002). 이스라엘의 영재교육, 동서양주요국가들의 영재교육. 서울;문음사, pp. 135-185
7. 정성범(1996). 영재교육에 부쳐. 영재교육연구, 한국영재학회, 제6권, 1호, pp.1-12.
8. Bloom,B.S(1966).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9. Bloom,B.S(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Ballantine..
10. David,G.A. & Rimm,S.B.(2003).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New York: Allyn and Bacon.
11. Colangelo,N. & Davis, G.A.(2003).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New York: Allyn and Bacon